

지역 소식통

정읍시, 신규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정읍시는 오는 8월 27일까지 8회에 걸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5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과 6월 2차례 선정자 교육 후 신규 청년농업인의 본격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농업 가치 인식, 경영관리 능력향상, 마케팅 활용능력 등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과정이다.

더불어 농업인이 알아야 할 농업회계·법률상식, 농업 퍼스널브랜딩, 농기계 안전사용 실습교육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문화적,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청년이 없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문화 공연 선보여

정읍시와 시 지역활성화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연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7월부터 9월까지 연이어 펼쳐질 총 4회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뮤지컬 공연 2회, 음악회 2회로 구성됐다. 첫 공연은 7월 20일 오후 4시에 시작되는 뮤지컬 갈라쇼 '우리들의 꿈'이다.

정읍 시민뮤지컬단이 무대에 올라 꿈과 희망 용기를 주제로 한 다양한 뮤지컬 넘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7월 27일에는 '정읍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음악회'가 열린다. 심정임 지휘자를 포함한 22명의 연주자들이 클래식부터 영화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한 여름 밤을 수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8월과 9월에도 시민음악회와 시민뮤지컬이 예정돼 있어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도심 속 공원, 여가문화 공간 조성

## 고창군 월곡근린공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완료... 명품 가로수길 등

고창군이 도심 속 공원을 활용한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해 힘쓰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역 산림생태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축적된 기술을 사업화로 연계시키는 노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부가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지역 대표적인 도심공원인 월곡근린공원이 도시숲 조성사업(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낡고 녹슬었던 철재 담장이 치워지면서 한층 개방감이 커졌고, 수목 생육 활성화를 위해 토양을 바꿨다.

산책로 정비, 맨발걷기 힐링길 조성, 의자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중앙광장에는 '월곡마을(방장)에서 솟아오르는 달

을 보며 큰 인물이 나갈 기원'을 상징하는 대형 보름달 조형물을 설치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녹색자금(복권기금)을 활용해 고창군노인복지관에 맞춤형 녹지공간과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물이 설치됐다. 지난해에는 효자요양병원에 복지시설 나눔 숲을 조성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색있는 명품 가로수길도 조성했다. 올해 명품 가로수길 사업으로 지방도 708호선 신림면 송춘교차로에서 왕립교차로 구간에 소나무를 308주 식재했다. 지난해에는 고창 방문의 초입인 남고창에서 덕산교차로까지의 구간에 소나무 288주를 식재하여 명품 가

로수길을 조성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가로수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 지역에 특화된 명품 가로수길로 꾸미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올해 찾아가는 주민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사업으로 주민들의 협조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8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종신 고창군 산림복지과장은 "건강과 삶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심 속 공원을 활용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는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번개탄을 판매하는 생명사랑 실천업체에 번개탄 보관함을 보급하고 있다

## "생명존중 문화에 중요한 역할 할 것"

### 정읍시보건소, 번개탄 안전 보관... 생명 지키기 앞장

정읍시보건소는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번개탄을 판매하는 생명사랑 실천업체에 번개탄 보관함을 보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생명사랑 실천업체는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며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가게를 뜻한다.

번개탄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 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를 사용한 극단적 선택 시도는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 보건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개탄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개 업체에 번개탄 보관함 68개를 배포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번개탄 보관함은 번개탄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낮추는 안전장치로, 번개탄을 판매 진열대에 두지 않으며 보이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 보건소는 보관함 보급 후에도 번개탄을 비진열 방식으로 보관하는지, 번개탄 구매자에게 구매 용도를 확인하는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생명사랑 실천업체주들이 자살위험을 보이는 고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양성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군, 금연구역 총 444개소 신규 지정 확대

###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수소연료공급시설 등

부안군은 관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관내 총 444개소가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지난 7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곳은 버스정류소 439개소, 택시승차대 3개소,

수소연료공급시설 2개소 등 총 444개소이다.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수소연료공급시설 부지 경계 내가 이에 해당된다. 이로써 부안군 금연구역은 현재의 2541개소에서 2985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부안군은 2015년 9월 '부안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 이후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 지

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해왔다.

군은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성공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옛도심 지역 '조양관' 복합문화공간 카페 시범운영

고창군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옛도심지역의 근대화유산 공간인 '조양관'이 복합문화공간의 카페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1935년에 건축된 조양관은 고창 읍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 중 유일한 일식역사관이며, 주거시설로는 보기 드문 가치를 갖는 건물이다.

일식 시멘트 기와를 얹은 2층 지붕과 외벽은 목재로 마감되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4월 30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고창군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조양관의 공간을 카페 및 문



화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범운영을 위해 오픈하였다.

이번 시범운영은 도시재생활동가들 모집·구성하여 바리스타 및 시설물 운영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조양관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매뉴 개발부터 시범화까지 도시재생 활동가들이 직접 3개월가량을 준비하

여 오픈한 '옛도심 조양관'은 고창군 옛도심지역의 첫 거점공간으로 10월 31일까지 임시 운영 예정이며, 아늑이 아름다운 이 공간을 많은 분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시(주말포함) 운영한다.

2021년 시작된 옛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옛도심 조양관' 거점시설을 시작으로 어울림센터, 음식차유장 등 거점공간을 준비해가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마련된 거점공간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동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옛도심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동진강 일대 양미역취 총 11톤 제거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자연보호단체 '동진강환경·복지협의회'와 '자연보호중앙연맹'과 함께 동진강 일대의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양미역취 제거사업 진행했다고 19일 전했다.

양미역취 제거 활동에는 6개월 동안 455명이 참여해 총 11톤을 제거했다.

양미역취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 생물이다. 양미역취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로 1909년 전남 보성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국내로 유입돼 토종생물을 위협하고 있다. 당시 양미역취는 꿀 생산용으로 도입돼 관상용으로 활용되다가, 점차 야생으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미역취는 1~1.5m 크기로 키가 크



고 밀도가 높아 서식지에서 물리화학적 환경을 변화시켜 국내종 서식지의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양미역취가 번식할수록 관내 역새류 등의 자생종의 생육이 방해된다.

양미역취는 뿌리에서 독성물질을 내뿜으며 다른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타감작용(他感作用)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미역취는 9~10월에 노란꽃의 개화기를 거친 뒤 씨앗을 뿌린다. 특히 뿌리를 내린 양미역취는 100년 가량 유지되며 번식력 또한 강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